



6.2 지방선거 5대 지역패널조사 2차 조사 5개 지역 유권자 표심 변동 요인

2010년 5월 31일

임성학 · 정한울
이곤수 · 서상민 · 정원철

제1부 D-7 6.2 지방선거 5개 지역 표심변동과 그 요인

천안함 후폭풍 “수도권 강풍, 충남/경남 미풍”...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정권심판론의 공감대가 왜 수도권 표심으로 연결되지 못했나?

박빙의 선거지역, 유동층의 표심이 결정한다...임성학(EAI 선거패널연구팀, 서울시립대)
경남, 충남 사례를 중심으로

제2부 제2차 5개 지역패널조사 기초분석__서상민 · 정원철 · 정한울

1. 2주간 지지율 변화
수도권 오세훈, 김문수 우세. 충남 안희정, 경남 김두관 오차범위 속 선전, 김완주 우세
2. 표심이동
유권자의 10 명 중 3명이 지지후보를 새로 정하거나 바꿨다.
3. 천안함 사건과 노풍의 손익 계산
천안함- 수도권 강풍 충남/경남에선 미풍, 노풍은 잠잠
4. 남은 변수, 무엇인가?
선거판세와 편승효과/부동층과 미결정층/막판 선거약재



I. D-7, 6.2 지방선거 5개 지역 표심변동과 그 요인

EAI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는 공동으로 서울, 경기,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에서 인구비례에 맞게 모집한 600명의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전부터 직후까지 세 차례 패널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는 두 번째 조사결과이다. 시간 변화에 따라 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한다.

천안함 후폭풍 “수도권 강풍, 충남/경남 미풍”

정권심판론의 공감대가 왜 수도권 표심으로 연결되지 못했나?

야권, 중앙풍과 지방풍이 교차하는 지방선거 특성 간과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6.2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바람 선거’로 요약된다. 야권은 초지일관 ‘정권심판론’의 바람에 기대 선거운동을 출발하여 ‘노풍’에 대한 바람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해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남 및 영남 등 각 당의 지역기반이 되는 충남,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차 지면서 소위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한 북풍이 노풍을 잠재웠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노풍을 투표기준으로 생각하겠다는 응답자는 35.9%에 그친 반면 천안함 사건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자는 54.1%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천안함 사건을 투표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자들은 한나라당을, 노풍을 고려하는 응답자들은 민주당 혹은 야권후보를 지지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천안함에 노풍이 가리게 되었다는 분석은 일면 타당하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 이전인 5월 10~13일에 서울, 경기, 경남, 충남, 전북에서 조사한 1차 패널조사와 여론조사 허용 기간인 5월 24일~26일 실시한 2차 패널조사를 비교해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여론은 전 지역에서 고르게 견제론 보다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추세가 드러난다. 외부의 위기 상황에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야당과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서울은 2주전 실시한 1차 조사의 49.3%에서 54.1%로 5.2%p, 경기에선 42.5%에서 53.3%로 10.8%p나 상승했다. 충남에서도 41.3%에서 46.3%로, 전북에서도 30.9%에서 35.9%로 각각 5.0%p 상승해 서울의 상승폭과 비슷했다. 경남에서는 50.3%에서 52.4%로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국정지지율의 상승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권 심판론을 주춤하게 한다. 더구나 천안함 문제에 대해 여야 없이 초당적 협력하는 주장에 대해 5개 지역 평균 88.7%가 공감한다고 밝혀 천안함 이슈로 야권이 여당과 각을 세우는 데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천안함 발표 이후에도 유권자들 사이에 이번 선거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으로 생각하는 여론은 여전히 남아 있고 여당이 주장한 참여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는 반감이 컸다.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 59.1%, 경기 67.3%, 충남 63.2%, 전북 72.0%, 경남에서 63.8%가 동의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26.0%, 경기 28.1%, 충남 29.2%, 전북 26.8%, 경남 25.3%만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천안함 발표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주목할 점은 광범위한 중간평가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또한 같은 친노 후보들 사이에서도 수도권에선 한명숙 후보와 유시민 후보가 고전을 하고 있는 반면, 충남과 경남의 안희정, 김두관 후보는 천안함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두를 다투며 선전하는 이유에 있다. 수도권이 정치적, 지리적 특성 상 중앙정치에 보다 민감하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남북대결 이슈에 둔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여론의 편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지방 특히 경남 지역의 경우 천안함 이슈의 영향이 수도권에 비해 적지 않았다.

[그림1] 천안함 사건 투표 고려 여부에 따른 지지율 변화

	지지후보 천안함	한나라당 후보	민주당/ 단일후보	자유선진 당 후보	진보신당 후보	미정	기권	모름/무 응답
서울	고려	52.2	30.8	0.4	3.2	11.7	1.6	
	고려 안함	34.7	38.7	2.0	4.0	19.6		1.0
경기	고려	49.8	27.6		2.1	18.4	0.4	1.7
	고려 안함	36.8	44.3		2.8	14.6	0.9	0.5
충남	고려	14.4	28.0	31.8		23.7	0.4	1.7
	고려 안함	11.8	41.6	21.6		22.0	2.0	0.8
경남	고려	40.3	19.0			37.9	2.4	0.4
	고려 안함	18.5	55.4			24.6	1.5	

[그림2] 노풍 투표 고려 여부에 따른 지지율 변화

	지지후보 노서거	한나라당 후보	민주당/ 단일후보	자유선진 당 후보	진보신당 후보	미정	기권	모름/무 응답
서울	고려	15.2	65.2	0.8	6.1	11.4	1.5	
	고려 안함	56.8	21.4	1.3	2.6	16.9	0.3	0.6
경기	고려	23.1	53.1		3.1	19.2	1.5	
	고려 안함	51.1	29.7		1.9	15.3	0.3	1.6
충남	고려	2.4	55.4	19.0		20.8	1.2	1.2
	고려 안함	18.3	24.7	31.3		22.7	1.3	1.7
경남	고려	45.3			34.9	3.5	0.6	100
	고려 안함	28.2			30.3	1.1		100



그렇다면 적지 않은 정권견제, 정권심판의 분위기가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도권 야당 후보의 고전과 충남, 경남지역 야당 후보의 선전을 가져온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한명숙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지역기반에 기반한 정치활동의 성과 보다는 ‘정권심판론’과 같은 중앙정치 대결구도와 바람에 기대 선거운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후보들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명숙, 유시민 후보의 경우 오세훈, 김문수 후보에 비해 신뢰도, 청렴성, 친근감 등에서 모두 뒤졌고 특히 시도정 능력 평가에 격차가 컸다. 두 후보 공히 정권심판론을 위한 야권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여 선거운동 이전의 지지율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앙정치인으로서의 비전과 능력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비전과 시/도정 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는 데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희정 후보가 세종시라는 지역최대이슈에 기반하고 있고, 김두관 후보는 세 번째 경남지사 후보에 도전하면서 지역에 상당한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 것과 대조적이다[13-14p 참조].

둘째,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선거프레임에 의해서만 유권자들의 선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상황과 무엇보다 중앙정치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4년간 지방자치를 이끈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의 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공감하는 사람만 뽑아 오세훈, 김문수 후보의 지난 4년의 시정/도정을 평가해보았다. 서울에서 현 정부 심판론에 공감하는 사람 244명 중에서 50%에 가까운 121명이나 오세훈 시장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처럼 MB 심판론에 동조하지만 오세훈 후보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9.7%로 한명숙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 34.7%를 상회한다. 경기에서도 MB 심판론자 중 김지사 도정평가에 긍정적인 사람은 45.2%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36.3%보다 많았다. 정권심판론 보다 현직자 평가를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안희정, 김두관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충남과 경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많은 지지를 받은 이완구 지사와 김태호 지사가 세종시 문제와 내부 조정으로 인해 선거에 나오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정권심판론 같은 중앙정치 대결구도가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정권심판론 여부에 따라 후보나 정책과 무관한 묻지마 투표를 하지 않고 누가 더 시정과 도정을 잘 이끌 것인가라는 지방선거 본연의 의미에 대해서도 무게를 두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에 기반을 갖고 지방현안에 뿌리를 둔 안희정, 김두관 후보가 선전하고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바꿔 출마한 한명숙, 유시민 후보가 고전하는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3] MB 심판론 공감자 중 오세훈 시장 시정평가에 따른 투표선호 차이

서울	오세훈 지지	한명숙 지지	자유선진당 후보	진보신당 후보	미정	기권	모름/무응답		
MB 심판 공감 244명	오세훈 시정 긍정평가(121명)	39.7	34.7	2.5	4.1	15.7	1.7	1.7	100
	오세훈 시정 부정평가(123명)	4.1	69.9	1.6	8.1	15.4	0.8		100

[그림4] MB 심판론 공감자 중 김문수 지사 도정평가에 따른 투표선호 차이

경기	김문수 지지	유시민 지지	진보신당 후보	미정	기권	모름/무응답		
MB 심판 공감 272명	김문수 도정 긍정평가(146명)	45.2	36.3	2.7	14.4	0.7	0.7	100
	김문수 도정 부정평가(126명)	7.1	68.3	4.0	19.8	0.8		100



박빙의 선거지역, 유동층의 표심이 결정한다

임성학(서울시립대)

지방선거 패널조사 지역 2차 조사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중 접전 지역인 충남과 경남이 서울, 경기, 전북 지역에 비해 아직도 유동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아직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미결정층의 비율은 서울 15.0%, 경기 16.4%, 전북 13.0%인데 반해 충남 23.3%, 경남은 32.3%로 나타났다. 결국 충남과 경남의 선거의 결과는 다른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렵고, 이런 미결정층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유동층은 어떤 유권자들인가? 유권자의 지지후보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여론조사방법은 똑같은 대상을 여러 차례 조사하는 패널조사만이 가능하다. 1차 조사 때 유동층인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정한 경우를 분석해 보면 이들의 특성과 경향을 밝혀낼 수 있다.

지난 번 여론조사보다 높은 지지도를 얻은 충남의 안희정 후보와 경남의 김두관 후보는 경쟁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유동층을 지지자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안희정 후보의 경우 지난 조사 당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동층 153명 중 50명(32.7%)을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지지층으로 흡수한 반면, 박상돈 후보는 31명(20.3%)를 흡수하는 데 그쳤다. 경남에서도 1차 조사 당시 투표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동층인 186명 중 18.3%인 34명이 이달온 후보 지지로 바뀌었지만 김두관 후보 지지로 바뀐 응답자는 23.1%인 43명으로 많았다. 지난 2주간 부동층의 행방은 안희정 후보와 김두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이들 1차 조사 시기 미결정층이었던 유동층 중에서 적극적 투표의향을 밝힌 유권자 중에서는 충남에서는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층이 37.9%로 가장 많았고, 경남에서도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33.3%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들 후보의 현재 지지율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충남, 경남 지역의 유동층이 각각 40.5%, 54.3%로 아직 많아 막판 선거운동에서 유동층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그림5] 1-2차 조사간 유동층 분석 (단위 %)

[충남] 부동층의 표심 이동(1차조사->2차조사)

1차->2차	2차지지	박해춘	안희정	박상돈	미정	모름/무응답	전체
1차 미결정층	Count	7	50	31	62	3	153
	이동비율 (%)	4.6	32.7	20.3	40.5	2.0	100.0



[경남] 부동산의 표심 이동(1차조사->2차조사)

1차->2차	2차지지	이달곤	김두관	미정	기권	모름/무응답	전체
1차	Count	34	43	101	8	0	186
미결정층	비율	18.3	23.1	54.3	4.3	0.0	100.0

[그림6] 1차 미결정층의 투표의향별 지지후보 (단위 %)

충남		[2차] 문3. ___님께서는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다음 중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Total
[1차]유동층 미결정층		박해춘	안희정	박상돈	미정	기권	모름/무응답
적극적 투표	Count	5	33	22	27	0	87
	행의 %	5.7	37.9	25.3	31.0	0.0	100.0
	열의 %	71.4	66.0	71.0	42.9	0.0	56.9
소극적 투표	Count	1	9	5	19	0	34
	행의 %	2.9	26.5	14.7	55.9	0.0	100.0
	열의 %	14.3	18.0	16.1	30.2	0.0	22.2
기권의사	Count	1.0	3.0	0.0	4.0	2.0	10.0
	행의 %	10.0	30.0	0.0	40.0	20.0	100.0
	열의 %	14.3	6.0	0.0	6.3	100.0	6.5
미정	Count	0	5	4	13	0	22
	행의 %	0.0	22.7	18.2	59.1	0.0	100.0
	열의 %	0.0	10.0	12.9	20.6	0.0	14.4

경남		[2차] 문3. ___님께서는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다음 중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TOTAL
[1차]유동층 미결정층		이달곤	김두관	미정	기권	모름/무응답	
적극적 투표	Count	28	39	50	0	0	117
	행의 %	23.9	33.3	42.7	0.0	0.0	100.0
	열의 %	82.4	90.7	49.5	0.0	.	62.9
소극적 투표	Count	6	3	43	0	0	52
	행의 %	11.5	5.8	82.7	0.0	0.0	100.0
	열의 %	17.6	7.0	42.6	0.0	.	28.0
기권의사	Count	0	0	2	8	0	10
	행의 %	0.0	0.0	20.0	80.0	0.0	100.0
	열의 %	0.0	0.0	2.0	100.0	.	5.4
미정	Count	0	1	6	0	0	7
	행의 %	0.0	14.3	85.7	0.0	0.0	100.0
	열의 %	0.0	2.3	5.9	0.0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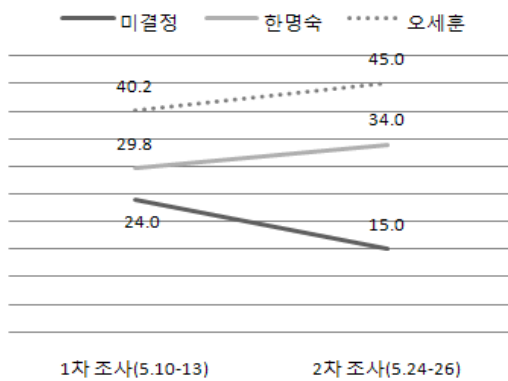
II. 제2차 5개지역 패널조사 특징 요약

1. 2주간 지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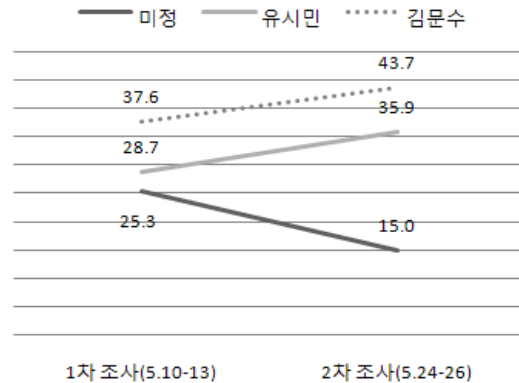
수도권에선 오세훈, 김문수의 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충남, 경남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안희정, 김두관 후보가 박상돈, 이달곤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다.

[그림1] 지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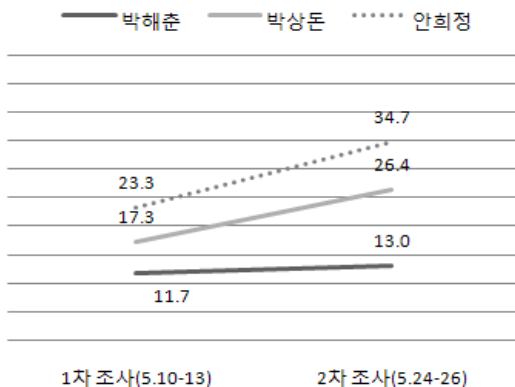
서울 : 오세훈 한명숙 격차 11.0%p 차로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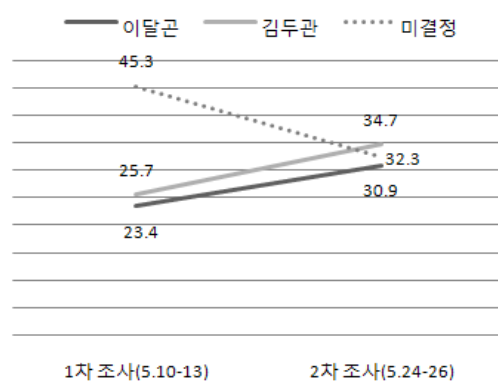
경기 : 김문수 우세 속 유시민 추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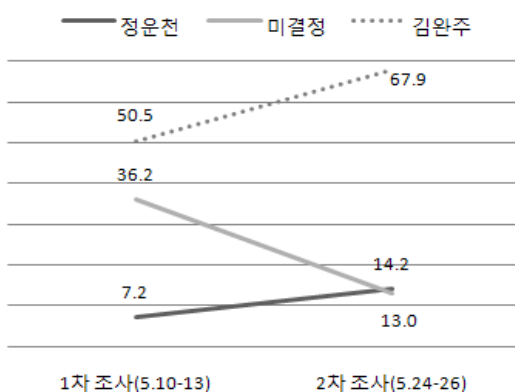
충남 : 안희정, 박상돈 동반상승 오차범위 내 안 우세



경남 : 김두관 이달곤 초박빙 승부



전북 : 김완주 독주 속 정운천 10% 넘어서



주: 패널조사는 매회 별도 샘플을 모집하는 일회성 조사와 달리 처음 모집한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지방선거, 대선, 총선 패널조사에서 지지율 추정에도 나름의 정확성을 보여준 바 있다.

패널조사는 태도변화 추적에 강점을 가진 조사이며 지지율 예측은 일반 일회성 전화조사(ARS/IVR 조사는 전화조사로 분류되지 않는다)가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해 일반 전화조사 결과와 본 조사에서 나온 지지율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지지율 증감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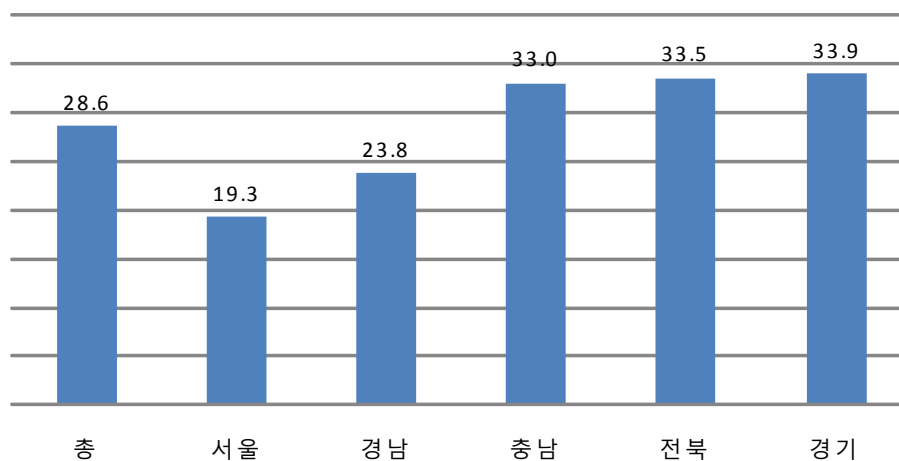


2. 표의 이동 : 유권자의 10 명 중 3명이 지지후보를 새로 정하거나 바꿨다.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까지 표심 이동

조사대상 5개 지역의 유권자 중 평균 28.6%가 유세기간 중 지지후보를 바꾼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이동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로 19.3%의 유권자만이 부동층에서 새로 지지후보가 생겼거나 지지후보를 바꾼 반면, 경기지역은 33.9%의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정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유동성이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조사 시점 이후 후보단일화를 이룸으로써 김진표 후보 지지자의 표의 이동이 많았던 탓이며 전북과 충남의 경우 부동층이 투표시점이 다가오면서 지지후보를 정한 비율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양자 대결 구도인 서울과 경남에서는 표의 이동이 많지 않고 기존 선택을 유지하는 비율이 많았다.

[그림2] 1차-2차 조사 2 주간 지지후보를 새로 정하거나 바꾼 비율



서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1차 오세훈 후보 지지층에선 무려 89.7%가 2차 지지로 이전되었고 한명숙 후보 지지층에서도 83.6%가 지지를 유지했다. 부동층(미결정층)의 경우 오세훈, 한명숙 후보가 각각 23.3%, 20.6%를 나눠 가짐으로써 전체적으로 표의 격차가 다소 늘어났다.

1->2차	사례수 410명	오	한	지	노회찬	미정	기권	모름/무 응답	계
오세훈	(166)	89.7	5.1	0.7	0.0	3.4	1.1	0.0	100.0
한명숙	(135)	5.9	83.6	0.0	3.3	5.0	1.0	1.3	100.0
지상욱	(3)	0.0	0.0	0.0	26.0	74.0	0.0	0.0	100.0
이상규	(1)	0.0	100.0	0.0	0.0	0.0	0.0	0.0	100.0
노회찬	(15)	23.7	10.9	0.0	51.4	13.9	0.0	0.0	100.0
미결정	(94)	23.3	20.6	4.8	2.5	48.8	0.0	0.0	100.0
기권	(3)	20.9	19.8	0.0	14.1	26.7	18.5	0.0	100.0

경기

경기지역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88.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단일화 이전 유시민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의 92.0%가 지지를 계속했고, 단일화 시기 김진표 후보 지지자의 64.6%가 후보단일화로 유시민 후보 지지로 돌아서 전체적으로 유시민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현재 유시민 후보측의 주장대로 김진표 후보 및 민주당 지지층의 흡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이들을 흡수할 경우 추가 지지율 상승 여지는 있어 보인다. 부동산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로 돌아선 응답이 23.6%, 유시민 후보 지지로 돌아선 유권자가 38.5%로 경기도 부동산에서 후보단일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차->2차	사례수 (명)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미정	투표하지 않겠다	모름/무 응답	계
김문수	(155)	86.4	0.3	4.8	8.1	0.0	0.4	100.0
김진표	(66)	5.3	3.8	64.6	20.3	0.6	5.4	100.0
안동섭	(1)	0.0	0.0	100.0	0.0	0.0	0.0	100.0
심상정	(5)	12.7	23.2	64.0	0.0	0.0	0.0	100.0
유시민	(66)	3.1	1.6	87.0	8.2	0.0	0.0	100.0
미결정	(90)	23.6	5.1	38.5	31.2	1.6	0.0	100.0
비투표	(13)	0.0	5.0	44.2	40.9	9.9	0.0	100.0

충남

충남에서는 안희정 후보 지지층의 결속력이 가장 높아 83.9%가 2차 조사에서도 안후보 지지를 표명했고, 박해춘 후보지지층은 70.8%, 박상돈 후보 지지층 지지율 71.5%를 상회했다. 부동산층에서도 32.9%가 안희정 후보 지지로 돌아섰고, 박상돈 후보 지지로 20.3%로 돌아서 안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층으로 남은 비율도 40.5%나 되어 여전히 유동성이 크게 남아있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1차->2차	사례수 (명)	박해춘	안희정	박상돈	미정	투표하지 않겠다	모름/무 응답	계
박해춘	(48)	70.8	10.9	10.2	8.1	0.0	0.0	100.0
안희정	(89)	1.2	83.9	2.9	9.9	2.0	0.0	100.0
박상돈	(66)	1.4	17.4	71.5	8.8	0.9	0.0	100.0
이용길	(13)	0.0	30.1	50.5	19.4	0.0	0.0	100.0
미정	(154)	4.6	32.9	20.3	40.5	0.0	1.7	100.0
비투표	(6)	0.0	0.0	0.0	53.0	47.0	0.0	100.0
모름	(8)	8.5	0.0	59.1	7.8	0.0	24.6	100.0

경남

경남에서 역시 이달곤 후보보다 김두관 후보 지지층의 결속력이 돋보였다. 이달곤 후보 지지층이 84.2%가 2차 조사에서도 지지를 유지한 반면, 김두관 후보 지지층에선 90.6%가 여전히 김 후보 지지를 밝혀 높은 지지층 결속력을 자랑하고 있다. 1차 조사에서 부동산층이었던 187명 중 18.1%가 이달곤 후보로, 23.1%가 김두관 후보 지지로 돌아서 여전히 박빙의 승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1차->2차	사례수 (명)	이달곤	김두관	미정	투표하지 않겠다	모름/무응 답	계
이달곤	(91)	84.2	3.0	12.0	0.0	0.8	100.0
이갑영	(10)	58.7	21.7	19.6	0.0	0.0	100.0
김두관	(100)	1.5	90.6	7.9	0.0	0.0	100.0
미결정	(187)	18.1	23.1	54.2	4.5	0.2	100.0
비투표	(10)	8.5	36.8	54.7	0.0	0.0	100.0
모름	(1)	0.0	0.0	10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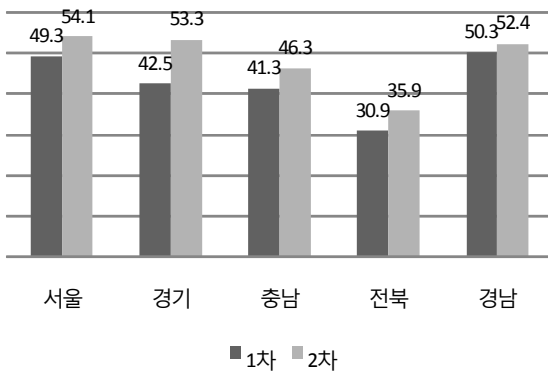
3. 천안함과 노풍의 손익계산

1) 안보결집효과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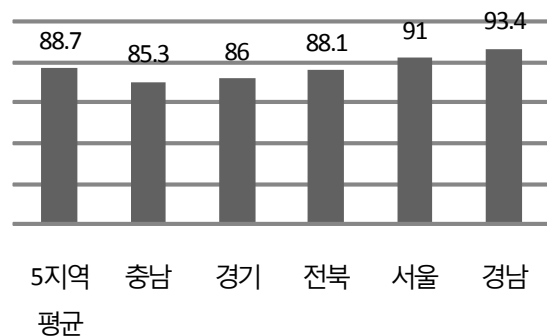
대통령 지지 높아지고, 초당적 여야 협력에 공감, 견제론 대신 안정론 촉진
특히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안정론 상승

[그림3] 1차-2차 조사 2 주간 안보결집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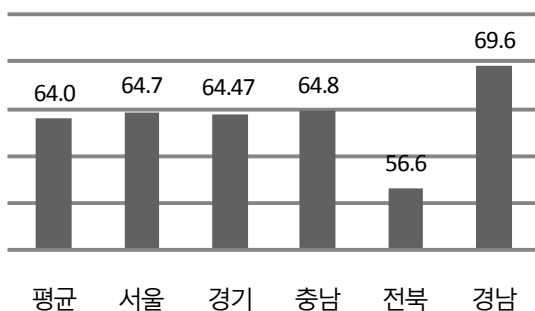
대통령 지지율 상승: 수도권에서 상승폭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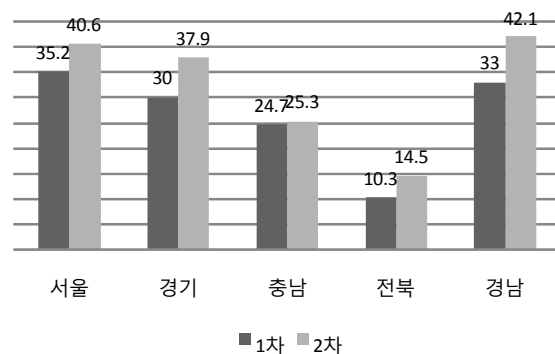
지역별 초당협력 공감도: 전 지역에서 커



정부의 천안함 진상 발표 신뢰도



지역별 안정론 : 수도권/경남에서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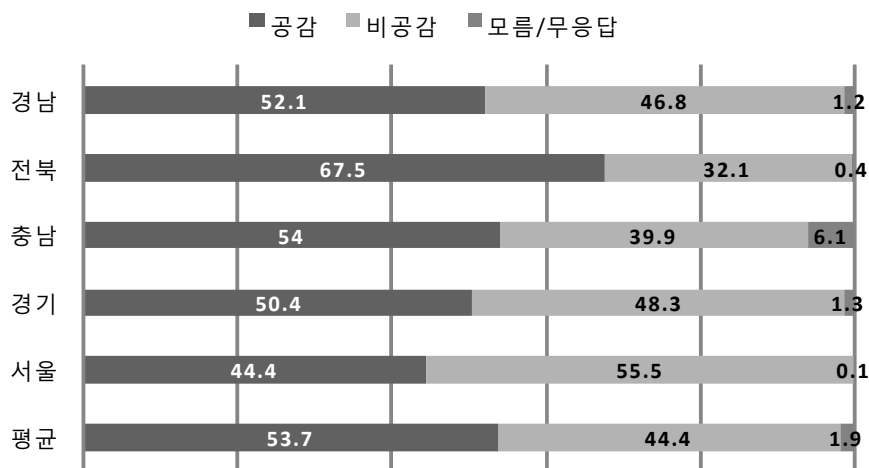
2) 노풍은 왜 안 불었나?

노전대통령에 대한 호감, 투표결정요인으로 이해하지는 않아

국민 절반은 노전대통령 정권 계승론에 공감, 노 서거 이슈 투표 시 고려하겠다는 36% 그쳐

전북과 충남에서 노 전대통령 정치철학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고, 서울지역에서 44.4%로 가장 낮았다. 천안함 사건을 투표시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54.1%에 달한 반면, 노 서거 1주기를 투표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노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77.5%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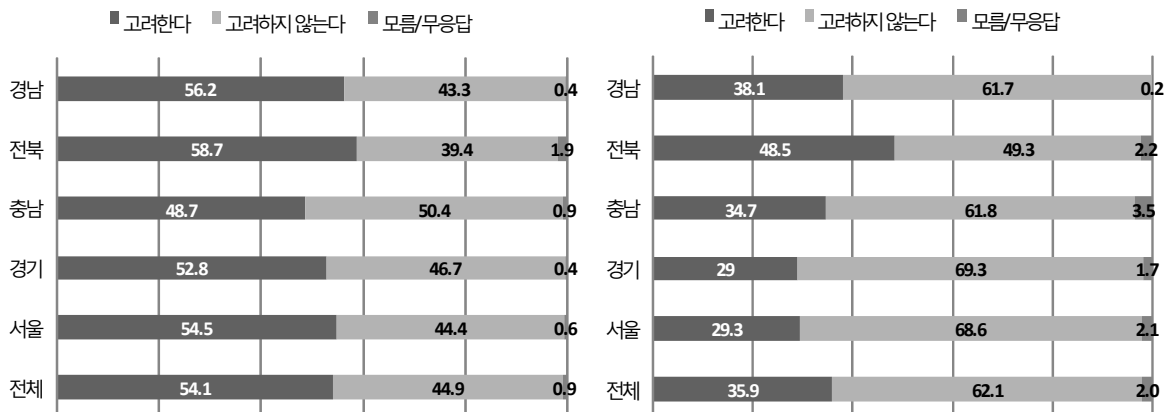
[그림4] 노 전 대통령 정치철학 계승 공감도(%)



[그림5] 선거 투표 시 고려: 천안함 및 노서거(%)

천안함 : 5개 지역 평균 54.1% 고려

노 서거 1주기 : 5개 지역 평균 35.9%만 고려



안정론 대 견제론의 표 전환율

수도권에선 오세훈/김문수 우세, 전북에선 김완주 후보 우세
경남/충남에선 팽팽하지만 박상돈 후보가 표 분산 효과 나아

수도권 안정론자 91.3%가 오세훈,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어진 반면 서울에서 견제론자의 68.0%가, 경기에서 70.7%만 유시민 후보 지지로 이어져. 반면 충청권에서는 박상돈 후보의 표분산 효과로 안정론의 46.7%, 견제론의 49.7%만 각각 박해천, 안희정 후보 지지로 이어져. 경남에서는 안정론자의 68.3%가 이달곤 후보를, 견제론자의 63.9%가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여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표1] 안정론/견제론 입장 별 지지후보 (%)

		한나라 후보	민주당 후보	선진당 후보	민노당 후보	진보당 후보	미정	기권	모름/무 응답	계
서울	안정론	91.3	0.5			2.2	5.5		0.5	100
	견제론	8.2	68.0	3.1		5.2	12.4	2.1	1.0	100
경기	안정론	92.5	1.7			0.6	4.0	0.6	0.6	100
	견제론	6.3	70.7			3.9	16.1	1.0	2.0	100
충남	안정론	46.7	4.1	24.6			24.6	0.0		100
	견제론	0.4	49.5	29.2			17.8	1.8	1.4	100
전북	안정론	55.4	29.2		3.1		12.3			100
	견제론	4.9	78.8		1.3	1.6	11.4	2.0		100
경남	안정론	68.3	3.2				27.5	0.5	0.5	100
	견제론	1.9	63.9				32.4	1.9		100

후보 요인 :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도지사 시도정 능력 평가 및 이미지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세훈, 김문수 후보/ 전북의 김완주 후보의 경우 시/도정 능력평가는 물론 전 분야에서 상대후보를 앞서고 있고, 충청권과 경남에서 안희정, 김두관 후보와 시도정능력 평가부분을 제외한 인물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표2] 후보별 이미지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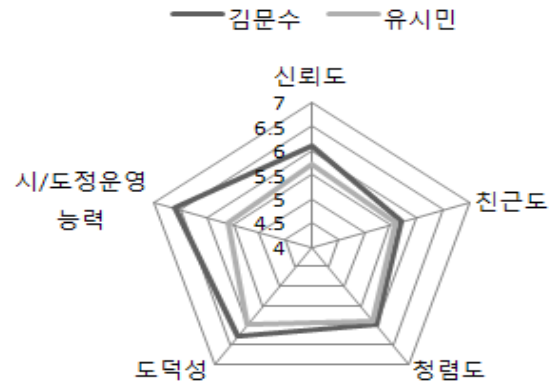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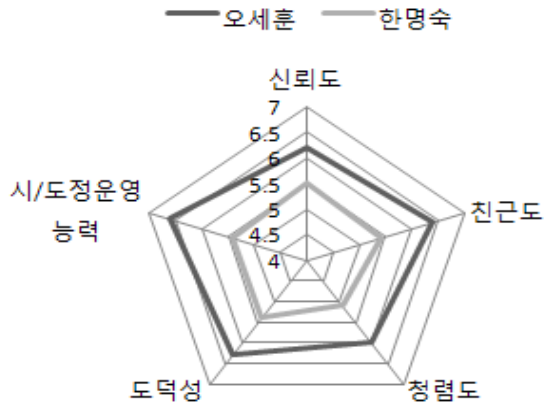
후보	이미지 믿을 수 있다	친근하다	깨끗하다	도덕성	이념성향	시정운영 능력
오세훈	6.1	6.3	6.0	6.3	6.3	6.6
한명숙	5.5	5.5	5.2	5.4	4.4	5.6
김문수	6.2	5.8	6.0	6.4	6.6	6.7
유시민	5.6	5.5	5.9	6.0	3.8	5.5
안희정	5.8	5.5	5.5	5.7	4.3	5.6
박상돈	5.3	5.3	5.2	5.5	5.8	5.7
박해춘	4.6	4.1	4.7	4.8	6.2	5.2
김완주	6.7	6.7	6.2	6.6	5.5	6.9
정운천	4.6	4.5	4.7	5.2	5.7	5.3
김두관	5.9	5.8	5.7	6.0	4.6	5.8
이달곤	5.7	5.2	5.3	5.8	6.5	6.2



[표3] 후보별 이미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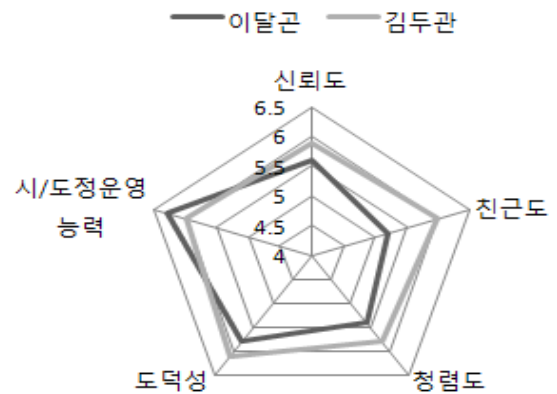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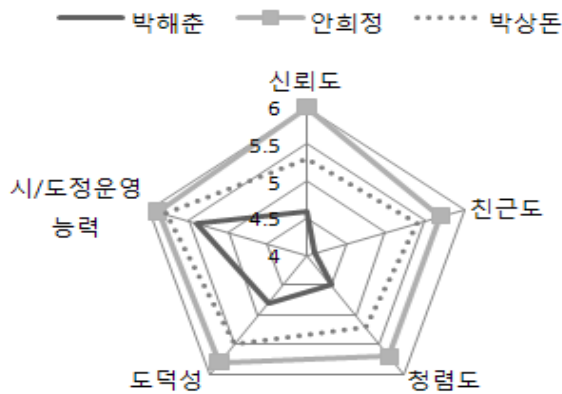
서울 : 오세훈 전 분야 우세

경기 : 金 도정능력/신뢰도 우세, 친근감/청렴 백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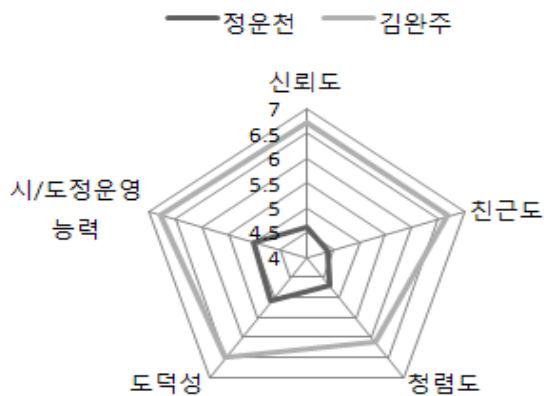


충남 : 안희정 우세, 박상돈 시도정능력 강점

경남 : 이 능력 / 김 친근감 청렴 신뢰도 우세



전북 김 전지사 전분야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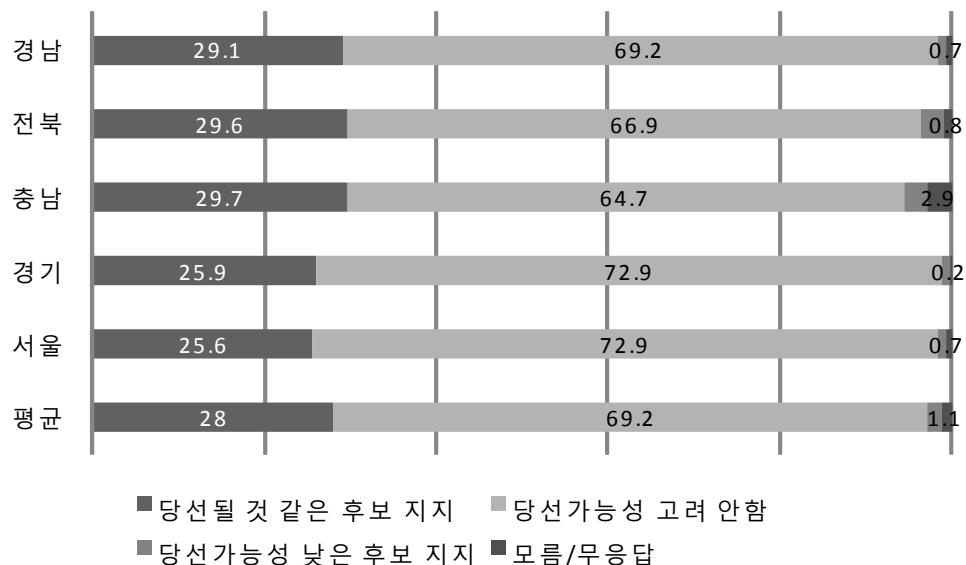
4. 남은 변수, 무엇인가?

1) 당선가능성 편승할까? 약자 지원할까? bandwagoning or Under the dog

당선가능성에 편승 커

앞서가는 후보에 대한 편승과 뒤처지는 후보에 대한 동정과 지지 중 부동층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현재 지지자들의 결속력이 높다는 점에서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유권자들은 약자 지원보다는 당선가능성 높은 후보에 편승하겠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6] 당선가능성 고려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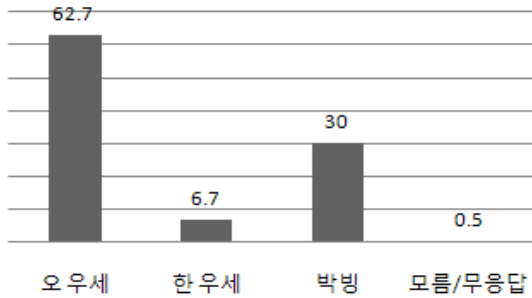
대부분 지역, 선두 주자의 당선 가능성 높게 봐

경남만 이달곤 후보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아, 김두관 후보 당선가능성 7.8%에서 18.9%로 상승
박빙 예상 45.7%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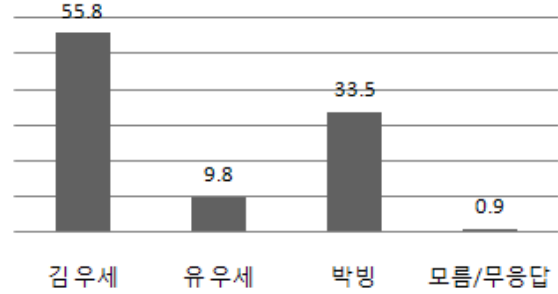
그렇다면 현재 어느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고 보는지 판세인식이 중요한데 대부분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경남에서 김두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달곤 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판세에서는 이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김후보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선가능성 높은 후보에 편승하는 효과의 경우 수도권과 경남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충청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유리한 위치라 할 수 있다.

[그림7] 현재 판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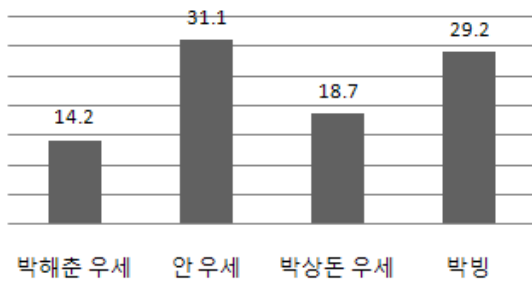
서울 : 오세훈 승리 전망 높아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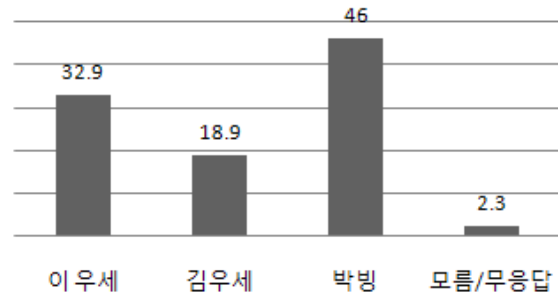
경기 : 김문수 당선가능성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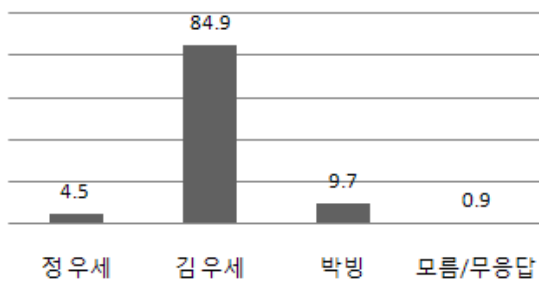
충남 : 안후보 당선 점치는 여론이 다수



경남 : 당선가능성에선 이달곤 우세



전북 : 김완주 후보 압도적 우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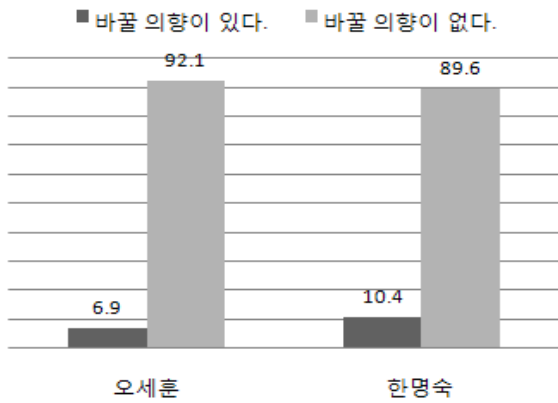
2) 변수2. 지지후보 교체가능성과 부동산: 충남/경남은 아직 몰라

5명 중 한 명은 미결정층, 바꿀 의향 “없다” 5개 지역 평균 75.6%, “있다”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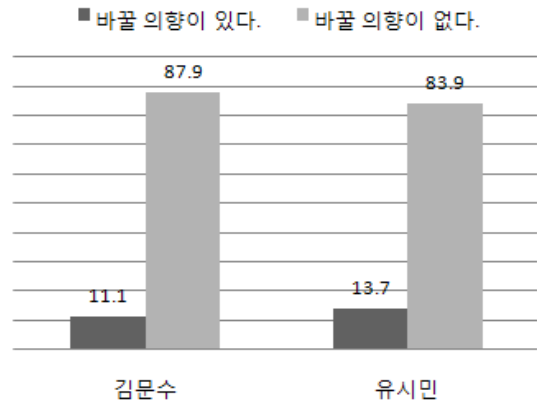
유력후보 지지층들의 경우 “80~90% 안 바꾸겠다”

[그림8] 지지층 결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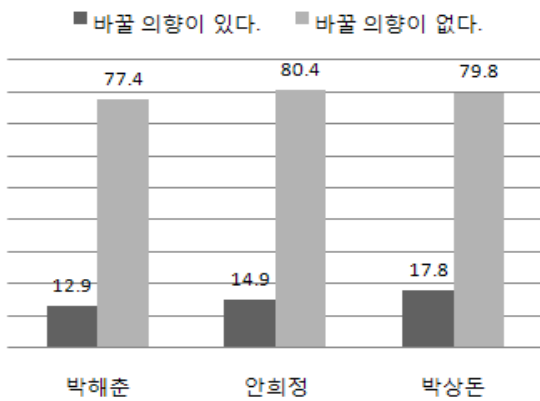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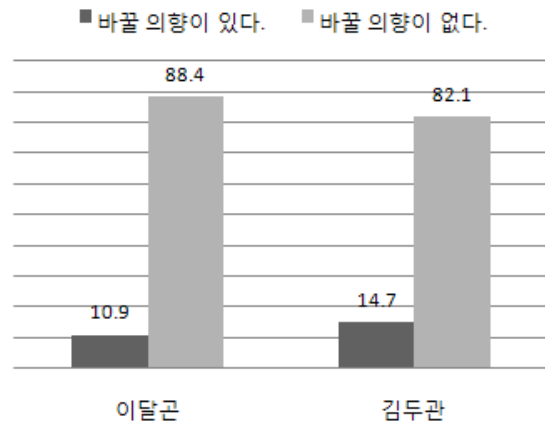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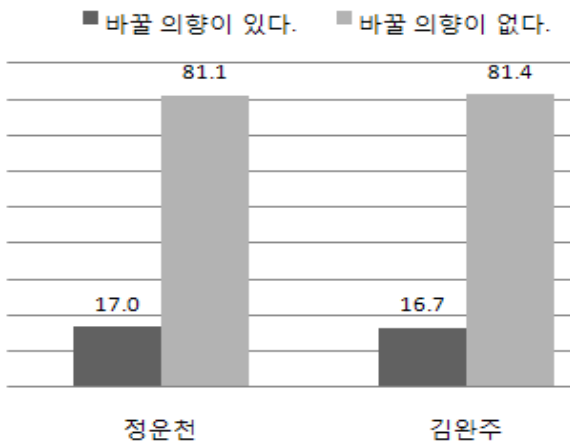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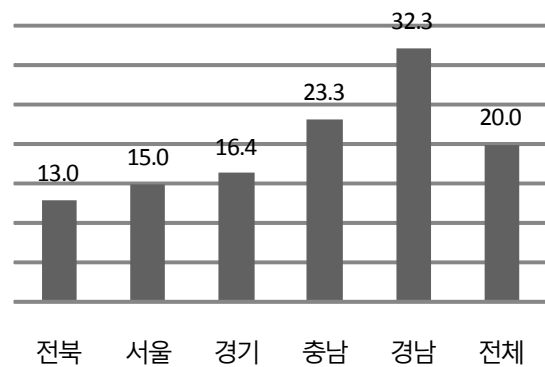
경남



전남



지역별로 남은 부동산 규모 : 충남/경남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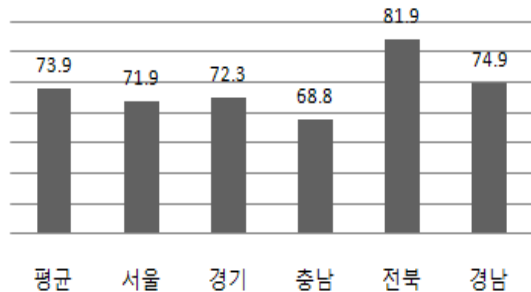
3) 오버하면 역풍, “천안함 안보공백론, 전교조 해직” 등에 비판적 여론 공감대 커

천안함 진상규명에 따른 북한에 대한 책임공방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슈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안보 허점을 보인 정부의 책임론으로 이슈가 이전될 경우 여론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도 67.2%에 달했다. 그러나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고 미국, 중국 고위층의 방문일정으로 대북 국제공조 문제가 이슈의 중심에 떠올라 이러한 이슈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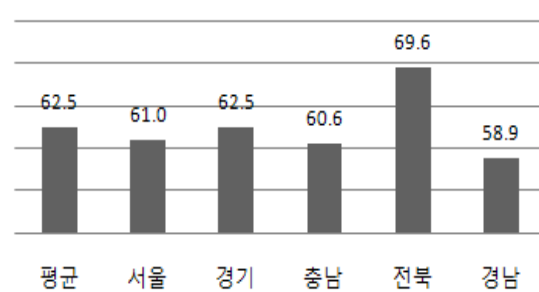
또 다른 변수는 얼마전 전교조 교사 해직 조치처럼 여권에서 지나치게 야권과 진보진영을 자극하는 조치들이 나올 경우 역풍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노동당 가입한 134명의 전교조 교사 해직에 대해 수도권은 물론 전 지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다. 해임조치를 7월로 연기하는 등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선거 전 강행했을 경우 적지 않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림9] 천안함 책임과 전교조 교사 해직에 대한 태도

천안함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처벌 “공감”



전교조 해직 반대여론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



EAI 동아시아연구원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EAI는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정치권 · 학계 · 언론계에 적지 않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태도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선거 보도 및 선거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비교의 연속성을 위해 2006년도 패널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방선거패널조사는 조사대상과 활용 목적에 따라 ① 5개 지역 패널조사(3회) ② 전국단위 패널조사 (2회)로 이원화 하여 진행한다.

① 5개 지역패널조사 : 서울/경기/경남/전북/충남 판세변화 및 선거결과 예측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의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각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전북/충남/경남 지역 유권자 대상의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서울과 충남은 2006년 조사를 진행했던 지역이며 경기, 전북, 경남지역이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조사지역에 포함되었다. 지역패널조사 응답패널은 지역별로 600명을 구성하여 총 3회 반복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일시	5월 10일~13일(4일간)	5월 24~26일(3일간)
모집단	19세 이상 성인남녀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총 3,000명(각 600명)	450~486명
표본추출	성/연령/지역 표본할당	1차 조사자 전수조사 (성/지역/연령/직업 가중)
표집오차	95%신뢰수준 ± 4.1%	95%신뢰수준 ± 4.6%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전화면접조사(CATI)
유지율	100%	64.2%~68.3%

② 전국패널조사 : 중앙정치 및 차기 권력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주

전국단위 패널조사는 선거 전후 2회를 실시하여 지난 대선 후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와 현 정부 후반기 집권전략, 2012년 권력재편에 미칠 파장을 집중 탐색한다. 전국패널조사 응답패널은 2007년 대선패널, 2008년 총선패널에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1,200명 규모의 패널을 구성하여 이전 선거 이후 2회 유권자 태도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일시	5월 4일~6일(3일간)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1,200명	
표본추출	성/연령/지역 표본할당	
표집오차	95%신뢰수준 ± 2.8%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유지율	100%	



패널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정외과)

연구진

이내영 (연구팀장,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권혁용(고려대 정외과), 김성태(고려대 언론학부), 김민전(경희대 교양학부),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 유성진(이화여대 BK21), 이우진(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임성학(시립대 정외과), 지병근(조선대 정외과),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언론

신창운(중앙일보), 현경보(SBS)

조사연구팀

김춘석(한국리서치 수석연구부장), 임석빈 (한국리서치 과장)

이 보고서는 EAI 여론분석센터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